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와 진로지원 향상 방안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Youth and Ways to Improve Their Career Guidance Supports

김성철^{●●} · 김미경^{●●●}

국문요약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성장 단계이다.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건강하게 극복하도록 돕는 일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적 과제이다.

특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지지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진학 지원, 진로 설계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어 청소년, 과도기, 자아 정체성, 다문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 차례**
- 서론
 -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성격
 -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 다문화 청소년의 진학/진로지도 방향
 - 결론

년기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변화는 사춘기로 표현된다.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들어가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청소년기를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국가에서도 법률, 교육제도, 사회제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법』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성년의 기준을 19세로 정하고 있고,² 『청소년 백서』에서는 청소년 관련 지표 조사대상 나이를 9~24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초등학교까지를 아동

1. 서론

성장과 쇠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흔히 사람의 일생을 유아기(취학 이전), 소년(녀)기(10대), 청년기(20대), 장년기(30~40대), 노년기(50대 이후) 등으로 구분한다.¹ 청소년은 청년기와 소년기의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이다. 청소년

● 본 논문은 2025학년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세한대학교 교양대학(제1저자)

●●● 세한대학교 교양대학(교신저자)

1 박진규 외, 『청소년문화』, 학지사, 2024, 39쪽.

2 정규석 외, 『청소년 복지의 이해』, 학지사, 2024, 15쪽.

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청소년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통상 청소년을 14~24세로 제한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 법」에서 아동/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독일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14세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넓게는 9~24세, 좁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인 13~18세로 이해하고자 한다.³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adolescence’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간다’는 의미의 라틴어 ‘adolescere’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모든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이동하는 성장기로 이해된다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생식능력을 갖추게 되고, 인지적으로도 성숙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역할 혼란의 위험에 도전하는 시기에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정체감 성취는 탐색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겪고 그것에 전념하는 상태이다. 정체감을 성취한 청소년은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이 선택한 역할에 몰입할 수 있다.⁵

콜버그(Kohlberg)는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도덕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극이 된다고 강조하였다.⁶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에밀』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기를 자신만의 가치와 독자성을 정립하여 재탄생 혹은 제2의 탄생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았다. 미국의 심리학자 홀(Stanley Hall)은 청

소년기를 ‘질풍노도의 단계’로 보았다. 청소년은 편안히 보호받는 아동기의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고 싶은 갈망과 자기 독립적인 성인의 세계에 진입하려는 욕망 간에 긴장과 분열을 경험하기도 한다⁷고 말하면서 청소년기를 연구 대상의 가치를 지닌 삶의 발달 단계로 정립하였다. 신성철도 청소년기의 아홉 개의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은 발달과 성장의 과도기에 있다. 둘째,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셋째,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싹트는 시기이다. 넷째, 청소년기는 감정의 양면성을 갖는다. 다섯째, 청소년기는 모험과 탐험 욕구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기는 반항의 시기이다. 일곱째, 청소년기는 성적으로 성숙해진다. 여덟째,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형성기이다. 아홉째, 청소년기는 독립을 쟁취하려는 시기이다.⁸ 신성철은 청소년기의 모순과 혼란, 이유 없는 반항, 과도한 비판의식, 지나친 자아의식 등은 성년으로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발전적인 징후라고 말한다. 과도기적 불안정과 정서적 기복을 극복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조화된 생활철학을 정립하여 발전과 완정의 비전을 갖도록 안내하는 청소년 지도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회적 책무이며 최대 과제이다.⁹

청소년이 출생하여 적응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청소년 발달에 줄곧 영향을 준다.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성장/발달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국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휘말려 있다. 모든 현대인은 이를 피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결혼, 취업 또는 학문을 이유로 여러 국적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UN은 2007년 민족과 인종, 언어, 종교와 문화가 구분되는 195개 나라에서 들어온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을 다문

3 김재업 외, 『청소년 복지론』, 학지사, 2022, 15~16쪽.

4 장수한,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23, 7쪽.

5 김재업 외, 앞의 책, 22쪽.

6 위의 책, 23~24쪽.

7 박진규 외, 앞의 책, 41~42쪽.

8 신성철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정민사, 2021, 23~25쪽.

9 위의 책, 24~25쪽.

화 이민 국가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¹⁰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되었던 다인종, 다문화 공존 사회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인구의 4.4%로 226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외국 학생 수는 181,842명으로 전년 대비 14,950명(9.0%)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7.4%(68,065명), 베트남 23.8%(43,361명), 우즈베키스탄 5.7%(10,409명), 몽골 5.7%(10,375명), 일본 3.2%(5,850명) 순으로 아시아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¹¹

다문화란 하나 이상의 복수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관련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각 문화의 다름을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¹² 다문화사회는 인종과 국적 등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단지 인종이나 국가, 피부색 등에 따른 구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 국가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족 유형인 다문화가정이란 한국과 다른 민족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둘 이상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공존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적어도 부모 한쪽이 한국인인 대다수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일컫는다.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¹³ 현재 한국 사회에는 국제결혼 다문화 청소년 이외에도 국내외 출생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입국 재외동포 가정 청소년, 해외입양

청소년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점차 통용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일반 청소년과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그들과 구분되는 차별적인 특성을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질풍노도를 겪으면서 다문화 환경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미흡으로 인한 이중문화 부적응,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은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¹⁴ 그들은 언어문제, 정체성 혼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소외감과 따돌림, 학교폭력 및 학업 중단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지와 보호를 받고 그들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우리 사회의 튼튼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사회문화적응과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유형과 문제, 다인종,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교육과정, 진학 및 진로지원 향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성격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

10 남부현 외,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2019, 21~22쪽.

11 오윤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24, 273쪽.

12 김성혁 외, 『다문화이해와 건강』, 학지사, 2021, 7쪽.

13 오윤선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학지사, 2020, 256쪽.

14 김주희,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2, 12쪽.

국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가 속한 가족이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¹⁵ 이 글에서 제한하는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형태로는 결혼이주자와 혼인 귀화자이다. 결혼이민자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혼인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결혼이주민은 1995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2003년에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여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결혼 건수 중 거의 10% 내외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남성 결혼자의 80%가 초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재혼 비율이 줄곧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82.4%로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인 17.6%를 훨씬 앞선다.¹⁶

우선, 국제결혼가정에서는 가정 내의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부부의 이중문화에 기인한 고통과 긴장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 등은 가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갈등요인으로 존재한다.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언어소통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가 어눌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남편이나 자녀와의 대화단절, 부부갈등을 초래한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52%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어 절대빈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권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아 정체성 갈등을 겪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대체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가족동반 불허’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내국인 노동자 인건비 상승과 3D 직업에 대한 노동 기피 현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관광 또는 단기 방문 사증으로 일을 시작한 이래, 외국인 인력 제도의 변화와 함께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21년 기준 452,297명으로 총 체류하는 외국인 1,956,781명 대비 23.1%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0%에 육박하여 OECD 19개국 국가의 평균인 6%를 상회한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큰 문제점은 경제문제와 직장문제 혹은 인종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사회문제이다.¹⁸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자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다.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인 청소년은 교육기회와 의료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수혜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 84조를 개정하여 미등록 청소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¹⁹

북한에서 출생해서 한국에 입국하였거나 한국에서 한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 이탈주민의 가정이 다른 다문화 가정과 비교하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언어와 사회문화로 인해 적응하기 능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분단이래 문화나 언어니앙스의 미묘한 차이, 또 다른 정치사회체제 등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이

15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 학지사, 2023, 51쪽.

16 김성혁 외, 앞의 책, 68쪽.

17 신중우 외, 『청소년 문화론』, 정민사, 2024, 200~202쪽.

18 남부현 외, 앞의 책, 236쪽.

19 장미아, 『다문화와 글로벌리티』, 양서원, 2023, 183쪽.

질적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에 사회/경제/문화/심리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한국 정착과정에서 직면하는 북한 이주민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고용 불안정은 가족의 안정적 정착, 북한 이탈 청소년의 성장과 학교 학습에 장애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형성을 주도해온 집단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문화적 부적응, 사회적 편견과 법과 제도의 차별, 가족 갈등과 해체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조화로운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및 다문화적 공존과 안정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3.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제 또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는 자 등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함으로써 형성된 가족이며 그 가족에 속한 24세 이하의 인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은 이들의 범위를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첫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모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지원대상이며 좁은 의미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다. 둘째,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국 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지칭된다. 셋째, 국내출생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지닌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넷째, 국외 출생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본인도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탈북배경 청소년의 유형은 출생지에 따라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북한 출생 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9.3%로 아직까지는 소수이다.²⁰ 2023년 8월 전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전체 학생의 3.4%를 차지한다. 이는 2015년 당시 전체 학생의 1.35%인 것에 비하면 7년 만에 100% 이상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2018년 이후 외국인가정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²¹ 젊은 세대의 저출산과 결혼 기피로 인해 국내의 학령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²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청소년 역시 일반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고 청소년기의 치열한 삶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환경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동반한다.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 결손이 특히 크다.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되면서 언어발달

20 김성혁 외, 앞의 책, 84~85쪽.

21 정규석 외,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24, 377쪽.

22 장수한,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23, 166~167쪽.

에 어려움을 겪는다.²³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독해와 어휘 능력, 글쓰기 및 글짓기의 능력이 현저히 낮다. 이들은 낮은 한국어 구사력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학업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교우와의 갈등 및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한다.²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한국어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한국 문화로 빈번한 오해와 불통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들은 진학 관련 정보 부족, 어린 동생 돌봄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학습능력 결손이 누적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 어려움이 크다.

통일부에서는 출생국가와 입국 유형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그리고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로 구분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북한과 중국출생의 청소년을 모두 합하여 '탈북학생' 또는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남한출생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명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과 중국출생의 청소년은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명명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로 명명하고 있다.²⁵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과 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와 한자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 시기에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치게 되어 기본적인 어휘 능력과 읽기, 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경우 북한어나 한국어가 아닌 출생국가 언

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입국 후 의사소통 문제로 사회적 고립을 느끼며 학교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혼란을 겪는다.²⁶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에서 살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또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가정 자녀 등을 포함한다. 대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나 준비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문제로 장기간 집에서 생활하여 학습 공백에 빠지거나 입국 초기 대부분 대안학교나 민간기관에서 한국어를 익힌 후 정규 학교에 편입한다. 게다가 언어문제와 학교 교육의 부재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과제 이해 부족으로 숙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²⁷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면서 또래의 부정적인 시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무대응, 무시, 따돌림 등으로 주류문화의 또래가 아닌 이주배경을 지닌 또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며 한국문화 거부와 외국문화 수용이라는 분리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²⁸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청소년은 대개 정신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부모갈등과 가정폭력, 급증하는 이혼율, 자녀 학대 등을 들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유대 및 지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과 비교하여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고 상대적으로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애착, 친밀도, 의사소통의 빈도가 낮고,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크다. 다문화 청소년의 약물 경험, 우울 그리고 자살 생각 지표가 일반 청소년에

26 정규석 외, 앞의 책, 390쪽.

27 최아람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20, 266쪽.

28 최지예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 태도와 외국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2023, 6쪽.

23 김성혁 외, 앞의 책, 116쪽.

24 장수한, 앞의 책, 168쪽.

25 김재업 외, 앞의 책, 262~263쪽.

비하면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빈곤의 문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학습 부진, 자아 이해의 부족과 자존감의 상실 등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²⁹

다문화 청소년은 두 문화 간의 차이와 긴장 관계에 따른 혼돈을 겪는다.³⁰ 이들은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사실에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의문을 던진다. 이들은 한국문화와 부모의 출신국 문화 간의 상반되는 사고와 행동방식, 두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 그리고 한국의 학교 교육을 동시에 접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문화적 갈등은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더욱이 어느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화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문화 청소년은 주변화 경험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쉽게 좌절한다. 부모의 피부색, 말투, 문화, 국적 등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과 갈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행동에 귀결될 수 있다.³¹ 특히 10대 중/후반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미 출생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³²

탈북배경 청소년은 청소년기 발달문제와 탈북과정 및 한국 사회 정착단계에서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북한에서 성장 시기에 내재화된 사고와 행동 양식과 다른 한국 문화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부딪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히 남북 간의 언어적 이질화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들도 또한 자신들이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니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가 외국인이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 집단생활에서 놀림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9a)의 조사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5.0%)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그들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립과 좌절감 등의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적개심과 자살 충동을 받기도 한다. 이는 발달 장애와 학습 장애로 악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학업이 중단되면 소외감과 적개심 등으로 심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017학년도에 1.17%(1,278)였으나, 2018학년도에는 0.14% 감소한 1.03%(1,263명)였다. 2017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의 경우 전체 청소년 수와 다문화 청소년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청소년 수는 감소하였다.³³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빈곤한 생활 환경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요구된다.³⁴ 정체성의 혼란과 정신적 위기 속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얻게 된다.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로지원이 이루어지

29 김재업 외, 앞의 책, 275~276쪽.

30 최지예 외, 앞의 논문, 6쪽.

31 오윤선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24, 275쪽.

32 정규석 외, 앞의 책, 381쪽.

33 김성혁 외, 앞의 책, 121쪽.

34 김재업 외, 앞의 책, 281쪽.

고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제도적인 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부처별 진학/진로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4. 다문화 청소년의 진학/진로지도 방향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통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재단을 설치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진로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양성사업,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2022년)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교육과 진로교육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레인보우스쿨' 일반형은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과 TOPIK, 검정고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진로형은 진로교육 기초과정과 예비 사회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심화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로 후기 청소년기 청소년 진로지원에 역점을 둔다.³⁵

'다재능프로그램'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심리 치료와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발달, 미래 설계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국에 81

개소에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부모 출신국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다문화 인재 DB 구축사업은 해외교류 및 해외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중언어에 역량 있는 인재를 관리하는 것이다. 교과부의 경우 청소년에게 이중언어를 직접 가르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평소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무지개 청소년센터는 탈북 청소년의 한국 생활 정착에 필요한 생활체험과 생활주제별 교육, 교육지원을 위해 비교문화체험학습, 미래를 향한 첫걸음, 교육지원사업 'ONE드림'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탈북배경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제정된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 시행령」,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에 관한 중장기 국가계획인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진로상담교사 대상 연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및 진로 체험, 진로상담자료 개발 및 보급, 글로벌브릿지 사업 등이 있다.

교과부는 '2022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지원과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맞춤형 한국어 교육, 다문화 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

35 긴 교육기간과 군복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취학연령 또는 학력에 따른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3-4학년부턴 중학교 시기까지를 청소년 초기, 고등학교 시기를 청소년 중기, 대학교 및 군복무 기간 모두를 청소년 후기로 구분한다. 오윤아 외, 앞의 책, 13쪽.

36 장수한, 앞의 책, 172~173쪽

로지도, 학교생활 및 정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과 진로지도까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으로 구분된다. 진입형은 한국어 교육 지원, 적응형은 기초학습 지원과 멘토링 지원, 성장형은 이중언어 및 진로지도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교과부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를 정책학교로 지정하여 교육능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두드림 학교' 우선 지정을 권장하고 있다.³⁷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관련하여 2012년에 예비학교와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지원,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2013~), 2019년 이후에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³⁸

교육부 산하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의 학교적응과 진로지원을 위해 멘토링과 진로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 담당 교원 대상의 연수와 워크숍,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은 탈북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서, 학습역량 강화와 교육시설 운영, 대학진학 지원 및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입국한 탈북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 보호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이 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이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만 22세 이하의 후기 다문화 청소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준별 한국어 수업,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의 기술교육, 맞춤형 진로 및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16개국의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이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다솜학교에서는 직업교육과정 이외에 한국어 수준별 수업, 법무부 사회통합 한국어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푸트테라피,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사업으로,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Job아라'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화된 진로지원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된 '무지개 Job아라'는 직장생활 한국어를 포함한 진로 탐색, 진로설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이에 반해 '내-일을 Job아라'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진출을 돕는 진로지원으로 지역의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지역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여성가족부, 교과부 그리고 노동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진학/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우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 시민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항들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향 및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체성을 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단 다문화 시대에서 통일 다문화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37 정규석 외, 앞의 책, 378~379쪽.

38 장수한, 앞의 책, 172~175쪽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통일 후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³⁹

5. 결론

청소년기는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언어소통능력 부족,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여러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다문화 청소년이란 둘 이상의 다양한 문화와 행동과 사고방식의 공존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은 현재 심화된 다양한 가정 위기와 빠른 사회적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부는 부모의 관심 저하, 이혼율 상승, 부부갈등 및 가족 해체 등의 가족관계 위기를 겪고, 빈부격차의 증가,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예방, 치료, 해결하고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인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다문화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어왔다.

청소년복지는 최근 급증한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인 실천 활동이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다문화 청소년이 대개 직면하는 문제들, 즉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안정한 가족관계에 기인한 정신적 건강문제, 학교폭력, 학업 중단 등은 한국 다문화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실천과제이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은 한국어 교육, 진로 개발 및 진로지도 그리고 고용 및 취업 지원, 경제적 도움과 사회문화적응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지지망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언어 장애와 학업 중단을 극복하기 위해

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학습 강화와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수업,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학습 도우미 제도, 방문 교사제, 상담 및 심리 지원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교육청,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의 장단점, 중복성, 효율성 검증 그리고 더욱 진전된 발전 방안 등은 다른 지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39 오윤선 외, 앞의 책, 268~271.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성혁 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양서원, 2021.
김재엽 외, 『청소년 복지론』, 학지사, 2022.
김주의,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정 책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2.
박진규 외, 『청소년문화』, 학지사, 2024.
오윤선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24.
이성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해』, 양서원, 2023.
장미아, 『다문화와 글로컬리티』, 양서원, 2023.
장수한,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23.
장인실 외, 『다문화 교육』, 학지사, 2022.
정규석 외, 『청소년 복지의 이해』, 학지사, 2024.
조원탁 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2.
최아람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20.
최지예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 태도와 외국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2023.

Abstract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Youth and Ways to Improve Their Career Guidance Supports

Kim, Sung-Chul | Sehan University

Kim, Mi-Kyung | Sehan University

Youth generally refers to individuals in the period of adolescence, a developmental stage marked by the biological changes of puberty and the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dolescence is therefore understood as a phase in which young people work toward forming a stable identity and acquiring the skills necessary for mature social life. A central goal of youth guidance is to support this process by helping adolescents build a healthy sense of self, adjust harmoniously to society, and move toward developmental growth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The term multicultural youth initially referred mainly to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s who were born in Korea and had one Korean parent. Today, however, the category encompasses a far more diverse population, including youth from foreign worker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immigrant youth with overseas Korean backgrounds, and internationally adopted youth. These young people, like their peers in the majority population, require protection, support, and access to education suited to their needs and developmental levels so that they can grow into capable members of society.

This article examines the wide range of challenges faced by multicultural youth in contemporary Korea and explores strategies for improving counseling and career-support systems to help them overcome these difficulties.

Keywords youth, transition period, self-identity, multicultural youth, international married families